

## 약속을 기억하신다.

성경말씀 <신명기 1장 1절 ~ 8절>

[1]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[2] 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[3]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[4] 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[5]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[6]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[7]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[8]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

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3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

본문에 등장하는 **호렙 산**에 대해서,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, 가장 다수의 견해는 1) **호렙 산과 시내 산**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산이라는 견해와 2) 동일한 산맥 줄기에 솟은 2개의 큰 산이라는 견해, 3) 그리고 호렙은 넓은 의미에서 지칭할 때 사용되고 시내 산은 호렙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. 모든 의견을 종합해 보면,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거나 **동일한 산**이라고 여겨집니다.

**하나님께서 시내 산(호렙 산)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.** 그리고,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려서 이동하였고, 그 곳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으며, 이후 광야를 배회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.

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, 아라바 광야에서 **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**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.

신명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날을 위해 다짐하게 하시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.

### 1. 지난 날의 의미를 생각하라.

[1] 이는 **모세가**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**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**이니라 [2] **호렙 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** [3] **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** ... [5] **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**하였더라

신명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세대에 대해서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 증인 중에 하나인 모세가 **그 간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하는 내용**입니다.

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,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. 그들이 호렙 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과 그 말씀을 듣고 11일이 지나 정탐꾼을 보내고, 돌아오기까지 걸린 50여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.

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아라바 광야에서 과거의 또 다른 비슷한 장소 **“가데스 바네아”**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

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것과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, 이스라엘의 쓰라린 패역함이었든,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.

## 2. 원래의 계획을 기억하라!, “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!”

[6]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**호렙 산**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**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** [7] **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** [8] **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**

호렙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던 곳입니다.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1개월을 머물렀습니다.

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**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**하셨습니다. 지도를 보면, 호렙 산에서,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, **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 약속의 땅의 남단**이었습니다.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땅으로,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장 북단의 레바논과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시내 산(호렙 산, 시내 광야)에서 보낸 시간을 “오래”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고,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습니다.

**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.** 하나님께서는 처음 약속하셨던 때부터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으며,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

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어도,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. **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셨다면, 지금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오셨고,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**

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.

## <기도제목>

1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붙잡고 하시고,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주소서.